



일본은행, 11조 엔의 추가금융완화 단행

박정희 선임연구원

- 일본은행(BOJ)은 지난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매입기금을 80조 엔에서 91조 엔으로 늘리는 금융완화 정책을 결정함.
 - 이는 지난 9월 기금을 10조 엔 증액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완화책을 발표한 것으로 2008년 4월 시라가와 마사아키(白川方明)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래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.
 - 이번 증액 결정은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영토 갈등으로 인한 일본의 경기침체 등을 우려했기 때문임.
 - 한편, 기금 증액 내용은 장기국채 5조 엔, 단기국채 5조 엔, 주가지수연동형상장투자신탁(ETF), 부동산투자신탁(REIT), 사채, 회사채 등 1조 엔임.
 -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완화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며, 이번 10조 엔 추가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임.
- 한편,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발표 직후 정부와의 공동성명에서 일본은행이 정기적인 물가보고서를 내각 회의에 제출하고 정부는 디플레이션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혁할 것이라고 보도함.
 - 정부와 일본은행은 신속하게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물가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.
 - 이번 성명은 지난주 일본정부가 발표한 4,226억 엔의 긴급 경기부양책에 일본은행이 부담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목표로 하는 '1% 물가 상승'이 어려워진 것도 추가완화책을 유도 하였음.
 - 한편, 일본은행은 1998년 일본은행법을 개정하여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였으나 이번 공동성명 발표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.

(아사히 외, 10/30)